

후기 갑인자 계열의 조판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Typesetting of Movable Types Cast Later
in the Shape of Gabin-Ja

김 성 수(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정유자의 조판 복원 |
| 2. 임진자의 조판 복원을 위한
방법론 고증 | 5. 결 론 |
| 3. 임진자의 조판 복원 | <참고문헌> |

<초 록>

이 논문은 제5주갑인자인 壬辰字와 제6주갑인자인 丁酉字의 조판을 복원한 실험·고증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핵심 관점은, 날개로 완성되는 금속활자는 그 鑄成 및 마무리 과정 등의 제작공정에서 활자의 높이가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높이를 지닌 개개의 금속활자들을 조판할 때, 각 활자의 높이를 어떻게 일정하게 수평을 이루게 하는가?'의 문제를 究明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첫째, 임진자의 조판에서는, 「日省錄」 등의 기록에 근거·응용하여, 활자의 높이가 낮은 해당 활자의 아랫부분 즉 印版 바닥에 填充休紙를 활용하여 그 부족한 높이만큼 채워 고임으로써, 조판 활자면의 전체적인 수평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복원하였다.

둘째, 정유자의 조판에서는, '字間朴只·填充休紙·填充大竹·灾傷休紙·填充用竹小升' 등을 활용하여 개개 활자 사이의 간격을 맞추거나 각 활자의 높이를 조정하면서도 그 조판에 조금도 빈틈이 없게 확고하게 고정함으로써, 印出(인쇄) 당시에 조판면이 조금도 흠어지지 않게 조치하여, 결국 아름다운 인쇄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새롭게 규명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要語: 갑인자, 임진자, 정유자, 조판 복원, 조판.

* 이 논문은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프로젝트에서 2007년도 사업인 「甲寅字와 한글활자」에서 발표된, 필자의 “壬辰字와 丁酉字의 복원을 위한 鑄造 및 組版 연구” 중에서 부분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의 ‘중간발표’와 ‘최종발표’에서 토론된 바를 재고찰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대폭 수정·보완하여 ‘觀點爲主’의 연구논문 체제로 전환한 것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09년 9월 2일 최초심사일: 2009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09년 9월 15일

<ABSTRACT>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experiments and restoration of the typesettings of Imjin-Ja, the fifth movable types cast in the shape of Gabin-Ja, and Jeongyu-Ja, the sixth movable types cast in the shape of Gabin-Ja. It focused on the limitation that the process of casting and finishing metal movable types in pieces could inevitably cause slight variances in heights of those types, and therefore, tried to figure out how to make these types in various heights level for typesetting.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ypesetting Imjin-Ja, the surface of a typeset was made level by filling papers in the spaces at the bottom of types in lower heights, based on the records of *Ilseongnok*, etc.

Second, it was also found that in typesetting Jeongyu-Ja, the types were perfectly set without any gap by using various materials, including papers, and pieces of wood and bamboo, in order to fill the spaces between types and make their heights level, and therefore the books were beautifully printed with those types.

Key words: Gabin-Ja, Imjin-Ja, Jeongyu-Ja, Typesetting, Restoration of Typesets.

1. 서론

필자는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에서, 2007년도에는 갑인자계열 금속활자 중 제5주갑인자인 壬辰字(1772: 英祖 48)¹⁾와 제6주갑인자인 丁酉字(1777: 正祖 1)의 鑄造 및 組版 분야를 복원·연구한 바 있다.

위의 연구에서는 임진자 및 정유자 금속활자의 주조 부분은 그 上部와 下部가 서로 어긋난 형태 즉, ‘가로 형태의 斷層 흔적의 결과’²⁾를 보이면서 활자의 하부는 이른바 터널형 구조의 상태로 주조된 상황 등을 실험·복원 주조를 통하여 상세하게 논증함으로써, “임진자와 정유자는 ‘상·하 분리형 父字’를 활용한 주물사주 조법으로 주조되었음”을 實證的으로 규명하였다.

그런데 위 활자들의 조판에 관한 부분은, 정작 원고의 제한 및 조판 실제의 여러 정황들을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그 내용의 전개가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서술에 치우침으로써, 조금은 미진하였던 아쉬움을 남겼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위 프로젝트에서 축적된 조판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위의 임진자와 정유자의 조판 복원에 대하여 보다 深度있고 명확하게 재조명함으로써, 조선 후기 갑인자 계열 금속활자의 조판에 관한 상황을 재논증하고자 한다.

-
- 1) 임진자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10여만 자가 所藏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임진자로 복원한 조판이 각각 남아 있음.
 - 2) 이러한 흔적은 『詩經諺解(1704)』 및 임진자(1772)와 整理字(1796) 그리고 韓構字(17세기 중엽, 1794, 1858)의 주조에서도 찾아냄으로써, 무신자한글활자부터 시작된 금속활자의 새로운 주조방법이 19세기 중기까지 계승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활자의 새로운 주조방법은 상하분리형 父字(목활자)를, 암틀(下型의 주형틀)의 주물사에는 그 상부의 父字를 심어 다진 후 그 목활자를 빼어냄으로써 母字를 조성하고, 수틀(上型)의 주물사에 또한 그 하부의 父字를 심거나 다진 후 목활자를 제거함으로써 각각 그 母字를 조성한 후, 상·하의 주형틀이 결합되어 생성되는 母字의 공간 속에 쇳물을 부어 주성한 결과임을 糾明하였음.

2. 壬辰字의 組版 復原을 위한 方法論 考證

금속활자 조판의 궁극적 목적은, ‘책을 인출하였을 때 종이에 인쇄된 상태가 一定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점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이 印出되었을 때 인쇄된 각 글자의 먹의 농염(濃艷)이 균질하려면, 조판 당시 모든 활자의 높이가 그 바깥 테두리인 광곽과 각 행을 구분하는 계선 등과 同一한 높이로 균일한 수평 상태를 이룰 때가 가장 理想的인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본 연구에서 임진자의 조판 복원에 관한 핵심 관점은, 날개로 완성되는 금속활자는 그 鑄成 및 마무리 과정에서 활자의 높이가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제작상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높이가 서로 다른 금속활자들을 植字하여 조판할 때, 각 활자의 높이를 어떻게 변란의 높이와 동일하고도 일정한 수평을 이루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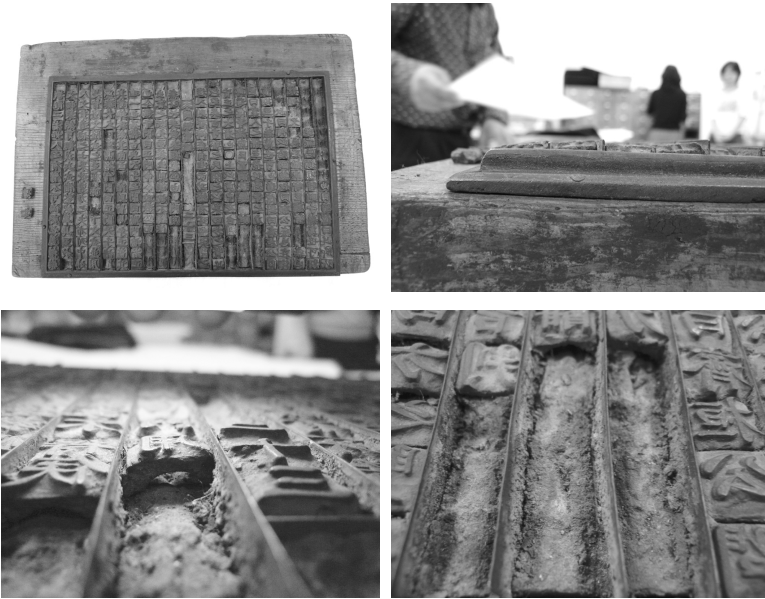
이에 본 장에서는, 임진자 조판 복원의 端緒를 찾아 각종 古記錄을 검색하고, 이에 입각하여 그 복원을 위한 방법론을 考證하고자 한다.

임진자의 조판·복원의 단서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임진자의 조판 사례’³⁾와, 조선 중기 이후 금속활자 조판과 관련된 『顯宗實錄 纂修廳儀軌』를 비롯한 각종 의례 및 『日省錄』 등 각종 문헌기록을 검색하여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첫째, 고려대학교 소장 임진자의 조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1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임진자 복원조판에서는, 첫째로 광곽은 일체형의 철우리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로 印版의 바닥에는 ‘밀랍과 종이섬유가 뭉쳐져 눌러 붙은 것인지?’ ‘물에 젖은 填充休紙가 말라붙은 것인지?’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물질이 잔존하고 있다. 셋째로 여기에 임진자 實物 활자 이른바 터널형의 활자를 植字하여 조판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로 활자가 없는 부분의 계선이 휘어져 있다는 점 등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김성수·윤용현, “고려대 소장 「임진자 국조보감 판틀」 조사 보고서,” 『甲寅字와 한글활자』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506-514. (이 유물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 今西龍에 의하여 복원된 것임).



<사진 1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임진자 조판 복원⁴⁾

이러한 영향인지는 몰라도, 임진자 주조·조판에 대한 기존의 학설은

활자의 두께가 얇으면서도 뒷면을 사뭇 둥글게 파서 銅의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한편, 밀랍을 참기름 또는 피마자기름 등과 배합하여 굳지 않게 만들어 고정시킨 印版 바닥에 깐 다음, 그 밀랍에 손쉽게 활자를 꽃아 인쇄하는 단계로 개량하였다.⁵⁾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활자의 두께가 얇으면서도 뒷면을 사뭇 둥글게 파서 銅의 사용량을 대폭 줄인 점’을 注目한 것은 분명 탁견이다. 임진자의 주조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점은, ‘금속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쇳물이 활자의 母型에 주입되면서 활자가 鑄成되는 온도 즉, 쇳물이 식어 고체화 되는 온도를 낮추어

4) <사진 1群>은 2007년 10월 12일에 고려대학교 박물관 방문조사 당시 필자가 직접 촬영한 것임.

5) 천혜봉,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318.

춤으로써 결과적으로 鑄成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큰 특징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⁶⁾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위의 인용문과 같은 방법으로 그 조판을 시도하였을 경우, ‘인판 바닥에 깐 밀랍에 각 활자를 꽂아 인판 활자면의 수평을 맞추었을 때, 이 때 활자에 눌린 밀랍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그 옆줄에 배치된 계선이 휘어지는 현상을 보인다.’⁷⁾ 게다가 조판된 활자들의 모양에서 각 계선상의 가로줄의 활자들을 나란하고 균등하게 배치·조판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하여 조판 작업 능률의 측면에서 그 효율이 떨어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임인호 전수조교의 하소연에 가까운 실제 조판작업 실험에 대한 상황설명이 있었다.⁸⁾

게다가, 周知하는 바와 같이, 조판에 있어서 인판의 바닥에 밀랍을 깔고 활자를 배열하는 등의 방법은 조선 초기 癸未字와 庚子字에 국한되었으며, 初鑄 甲寅字 이후에는 밀랍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렇다면 임진자와 정유자가 鑄成된 영·정조 당시의 관련 기록을 『日省錄』 등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일성록』의 1796년(正祖 20) 12월 15일조에 의하면, “正祖가 임진자·정유자·韓構字의 주조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면서, 전후에 만든 활자의 銅體가 같지 않아서 활자를 배열할 때는 모두 물에 젖은 종이를 덧붙여 사용하였으며, 별도로 몇 사람에게 주묵으로 구절에 따라 지워, 높고 기울지는 것을 바르게 고치고자 하였으나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감”⁹⁾을 밝히고 있다.

위의 기록에 근거하여 <사진 2> - <사진 5>를 살펴보면, 임진자와 정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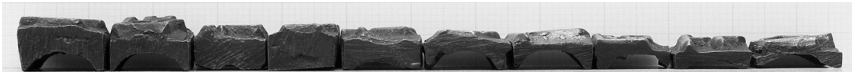
6) 이는, 본 연구용역의 중간발표 때, 금속공학을 전공하는 자문위원들이 異口同聲으로 자문한 내용에서 발췌한 것임.

7) 실제로 <사진 1群>의 下·右에 배치된 사진의 계선(銅印札) 모양에서도, 그 계선이 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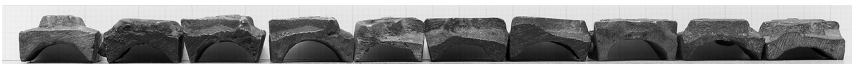
8) 위의 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인판의 바닥에 펼쳐진 밀랍의 두께 및 함량을 조절하는데 고도의 경험과 이른바 노-하우(know-how)가 축적되어야, 비로소 밀랍에 각 활자를 꽂을 때 옆줄의 계선이 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자의 字間 배열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9) 남권희, “주물사주조법에 의한 금속활자 주조방법 연구,” 『금속활자 주조 및 인쇄기술사 복원 연구 결과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6), 73.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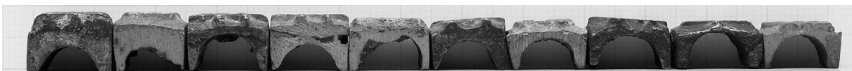
그리고 한구자 등의 활자 높낮이가 실제로 서로 약간씩 각각 다름을 알 수 있고, 단독활자 또는 이들 활자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조판할 때, 높이가 부족한 활자의 아랫부분에 종이를 물에 적서 덧대는 방법 등으로 그 높이를 수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 무신자한글활자의 높이¹⁰⁾



<사진 3> 壬辰字(1772)의 높이¹¹⁾



<사진 4> 整理字(1796; 正祖 20)의 높이¹²⁾



<사진 5> 韓構字(17세기 중엽, 1794, 1858년 세차레 주조)의 높이¹³⁾

그러므로, 임진자의 실제 조판에서는 밀랍이 사용되지 않았고, 활자의 높이가 낮은 활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塡空休紙 등을 활용하여 그 부족한 높이를 인판 바닥에 채워 고임으로써, 임진자 조판 활자면의 전체적인 수평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과연 그렇다면, ‘정조 시대를 기점으로 한 그 前後의 기록에서도 금속활자 조판에서 전공휴지 등을 활용하여 조판한 사례가 있었는가?’를 증명할 필요가

10) 사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한글금속활자』, 184.

11) 사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한글금속활자』, 185.

12) 사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한글금속활자』, 185.

13) 사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한글금속활자』, 186.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즉, 17세기 중기 이후에 실록의 간행에 대한 금속활자 조판 관련 기록 즉, 「顯宗實錄 纂修廳儀軌(1677)」·「英宗大王實錄廳儀軌(1781)」·「正宗大王實錄廳儀軌(1805)」 등에서 금속활자의 조판 및 인출과 관련한 사항들을 추출하여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上記 각종 실록관련 「의례」들에서 금속활자의 조판 등과 관련한 기록으로, 매 조판에서 활자의 높이가 부족할 때 및 빈 공간을 메우는 종이인 ‘塡空休紙’, 구리로 만든 얇은 계선으로 사용하는 ‘銅印札’, 활자를 벌려놓고 배열하고 고르는 판인 ‘均字板’, 책 본문의 변란을 부착시키는 나무판인 ‘圍裡次自作板(테두리용 자작나무판)’ 등이 등장하고 있다.¹⁴⁾ 그런가 하면, 鑄鐵匠이 만드는 책의 匡郭用 ‘鐵弓里’,¹⁵⁾ ‘실록 정본을 인출할 때 쓰이는 塡空所用 災傷休紙 500斤을 준비할 것’,¹⁶⁾ ‘실록 정본을 인출할 때 塡空紙는 의례의 전례에 白休紙 540斤과 재상휴지 482근이 소용되고, 매 1판에는 3량 7전이 들어가는 바, … 우선 재상휴지 500근을 준비하고, 이 달 29일 100근을 우선 올릴 것’,¹⁷⁾ 인출할 때 均字匠이 쓸 塡空 대나무인 ‘塡空大竹’,¹⁸⁾ ‘군자장이 塡空 작업에 쓸 白休紙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災傷休紙 500근을 올릴 것이며, 많이 들어온 재상휴지는 모아두고 수시로 올릴 것’,¹⁹⁾ 군자장이 塡空에 쓸 ‘大竹’,²⁰⁾ ‘인출할 때 쓸 … 字代로 쓸 白休紙 1근’·‘인출할 때 割付로 쓸 厚白紙 10권’²¹⁾ 등등의 여러 조판 및 인출 관련 각종 용어와 수량에 관한 기록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실록의 간행과 관련한 각종 의례의 내용들²²⁾에서는 ‘塡空休紙, 銅印

14) 「顯宗實錄 纂修廳儀軌」 丁巳(1677) 9月 20日 印出諸具. 참조.

15) 「英宗大王實錄廳儀軌」 更子(1780) 4月 29日. 繕工監 牒報.

16) 「英宗大王實錄廳儀軌」 更子(1780) 5月 日. 戶曹.

한편, 재상휴지를 경비 절감의 차원에서 白休紙 대신 쓸 것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17) 「英宗大王實錄廳儀軌」 更子(1780) 5月 26日. 戶曹.

18) 「英宗大王實錄廳儀軌」 辛丑(1781) 3月 19日. 校讎廳甘結秩.

19) 「英宗大王實錄廳儀軌」 辛丑 4月 初2日. 校讎廳甘結秩.

20) 「正宗大王實錄廳儀軌」 乙丑(1805) 4月 日. 別工作謄錄.

21) 「正宗大王實錄廳儀軌」 乙丑 5月 初2日. 校讎廳甘結秩.

22) 남권희, “朝鮮時代 金屬活字 鑄造와 組版에 관한 研究,” 「갑인자와 한글활자」 (청주: 청주

札, 均字板, 圍裡次自作板, 鐵弓里, 災傷休紙, 填充大竹, 白休紙, 厚白紙' 등의 용어와 내용들만 등장할 뿐, 실제로 '印版의 바닥에 蜜蠟을 깔거나 편다'는 등의 記事는 의례 전체 내용의 그 어느 기록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듯하다.²³⁾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여러 기록들에 입각하면, 임진자를 조판하였을 때에는 서로 다른 활자간의 높이를 조절할 경우에는 인판의 바닥 부분에 물에 적신 전공 휴지 및 재상휴지 또는 마른 상태의 白休紙 등을 넣어 고임으로써 그 높이를 맞추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밖에, 활자의 세로길이가 차이가 날 때에는 자간박지(字間朴只)나 填充大竹 등을 넣어 자간을 조절하였을 것이며, 또한 활자와 계선 사이 등의 빈틈은 전공휴지나 재상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메워 조판함으로써, 조판된 활자들을 인판의 동우리 속에 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록 조판·인출의 전례에 '백휴지와 재상휴지가 무려 1,022근이나 소용되었음'²⁴⁾을 注目하면, 이러한 휴지들은 활자의 높이 조정뿐만 아니라 填充大竹과 함께 조판상의 모든 공백을 메우는데 총동원되었음을 考證할 수 있고, 그 조판에서 밀랍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推定하는 중요한 端緒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임진자와 정유자의 조판 복원에 있어서는 위에서 논술된 사항을 유념하여 그 조판 실험에 임하고자 한다.

임진자와 정유자의 조판 복원의 실체는 다음의 각 장과 같다.

고인쇄박물관, 2007), 75-95. 쪽에 수록된 「顯宗實錄 纂修廳儀軌」·「英宗大王實錄廳儀軌」·「正宗大王實錄廳儀軌」의 내용 참조 요.

23) 다만 「顯宗實錄 纂修廳儀軌」 1677(丁巳)년 9월 20일의 記錄 중 '印出諸具'의 거의 末尾에 '黃蜜 15兩5錢' (남권희, '부록1. 活字鑄造 및 組版關聯 記錄,' "朝鮮時代 金屬活字 鑄造와 組版에 관한 研究," 80.)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金 1兩은 10돈이며, 16냥이 1斤이므로, 오늘날의 무게기준으로 1냥은 37.5g에 해당한다. 따라서 약 15냥은 561g에 불과하다. 이러한 황밀의 분량은 「현종실록」의 전체 인출에서 그 표지의 粧幀 등이나 활용될 수 있는 微量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밀랍의 분량 기록에 근거하여 '15냥'을 印版의 바닥에 깔아서 조판의 밀랍 처리용으로 사용한다면, 단 한·두 판만의 印版 바닥에나 깔 수 있는 분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종실록」의 조판에는 그 인판의 바닥에 밀랍치리를 하지 않았을 蓋然性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4) 각주 17)의 본문 참조 요.

3. 임진자의 조판 복원

임진자 조판 복원의 대상은, <사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雅誦」²⁵⁾ 卷6의 第1張을 대상으로 하여 그 복원실험을 실시하였다.²⁶⁾

「아송」의 목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雅頌. 卷5-8 / 朱子 著 ; 正祖 命編. -- 金屬活字本(壬辰字). 漢陽 : [校書館], 正祖 23[1799].

4卷1冊(65張) : 四周單邊 半郭 24.8×16.9cm, 有界. 10行18字, 註小字雙行. 上下向花紋魚尾

본 작업에서는 먼저 임진자를 비롯한 갑인자 계열의 평균 활자크기가 ‘가로 1.6cm × 세로 1.4cm × 높이 0.8cm’²⁷⁾ 규모임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사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卷)의 첫 장은 우선 그 광곽의 네 테두리가 하나의 형태로 결합된 이른바 ‘일체형’인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림 1>에 제시된 변란의 여러 형태 중 F형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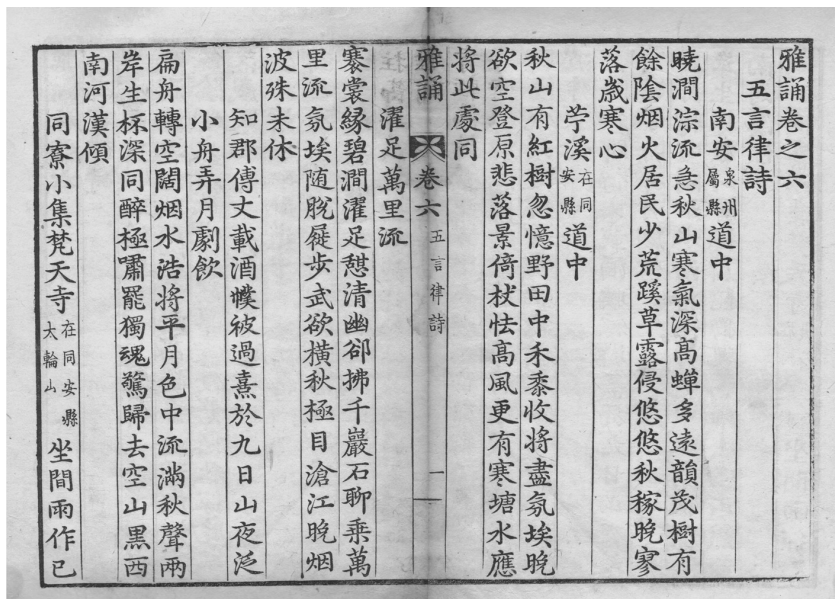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이 책의 크기에 맞도록 일체형 동우리를 준비하면서, 높이는 0.8cm로 제작하고, 그 상부의 두께는 0.2cm가 되도록 절삭하여 조정한다.

25) 正祖가 朱子の 詩文을 뽑아 엮은 책으로, 1799년(정조 23) 활자본(壬辰字)으로 간행하였다. 내용은 사(詞), 부(賦), 금(琴), 조(操), 고근체시(古近體詩), 명(銘), 찬(贊), 제(題), 사(辭), 권학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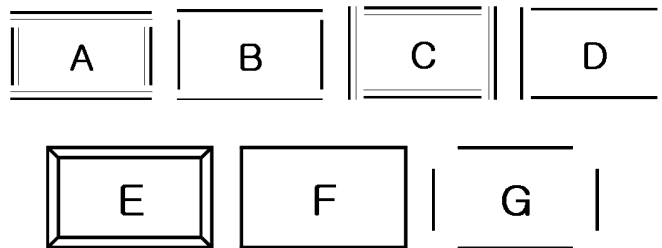
26) 이 실험을 위하여 함께 참고한 임진자본은 본 연구프로젝트팀에서 구입한 「詩傳大全」 卷之四, 「周易大全」 卷首, 「周易傳義大全」 卷之二十, 「唐大家柳柳州文抄」 卷之五, 「論語集註大全」 卷之一 등을 참고하였다. 아울러 임진자본을 일제강점기 시대에 복원한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임진자 복원 사례(<사진 1群>의 上左 사진 참조 요)을 염두에 두고 그 실험을 실시하였다.

27) ① 국립중앙박물관, 「한글금속활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6).

② 천혜봉, 「한글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177-180.



<사진 6> 「雅誦」 卷之六의 第1張



<그림 1> 변란의 형태²⁸⁾

28) 남권희, “朝鮮時代 金屬活字 鑄造와 組版에 관한 研究,” 38.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임진자 참고자료 중, 「論語集註大全」의 경우에는 A·E형이 그 주류를 이루고, 「周易大全」은 F형에 속하며, 「周易傳義大全」·「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 및 「唐大家柳州文抄」는 A형 또는 A형의 일체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임진자라 하더라도 조판의 형식은 시대와 조판 匠人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계선은 광곽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선의 상부 두께가 약 0.5mm 정도가 되도록 얇게 편 높이 0.8cm의 銅印机 또는 竹木을 준비한다.

한편, 이 책의 판심에 보이는 魚尾의 형태는 어느 어미와는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다. <사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二葉花紋魚尾’의 형태, 다시 말하여 下魚尾가 생략된 형태를 보이면서 그 자리에 單線만이 배치되어 있다.²⁹⁾ 또한 이 사진에서, 版心題가 上白口의 위치에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雅頌’)로 배치되고, 卷次는 上魚尾와 인접한 아래 부분인 판심의 중앙에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밑에 卷內容題와 卷張次가 小字로 판심의 오른쪽으로 치우쳐 배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조판상의 美的 감각을 최대한 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자를 비롯한 갑인자 계열의 <조판의 순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상세하게 제시³⁰⁾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조판에 임한다.

29) 반면에,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임진자 참고자료 중, 『論語集註大全』·『周易傳義大全』의 경우에는 그 魚尾가 ‘上下內向2葉花紋魚尾(單線, 單線)’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 『周易大全』은 『아송』과 같은 ‘上2葉, 花紋魚尾(單線, 單線), 下無魚尾(單線)’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版心題와 張次가 판심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한편,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는 그 판심이 ‘上下內向黑魚尾(單線, 單線)’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唐大家柳柳州文抄』는 『아송』의 판심 형태와 동일하게 그 魚尾가 ‘上下內向2葉花紋魚尾(單線, 單線)’의 모양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柳文’이라는 略書名의 版心題가 上白口의 위치에 자리하고, 上魚尾 바로 아래에는 卷次를 판심의 중앙에 배치하고, 下魚尾의 위쪽에 張次를 판심의 중앙에 배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임진자라 하더라도 판심 조판의 형식이나 형태가 시대와 조판 匠人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또한 그 특징이라 하겠다.

30) 남권희, “朝鮮時代 金屬活字 鑄造와 組版에 관한 研究,” 69-70.

** 조판의 순서 **

- ① 책의 行字數에 맞추어 조판에 사용할 鐵弓里와 鐵弓里冊版을 고른다.
- ② 弓里的 형태에 따라 쌍변일 경우는 얇은 竹片을 변란 안쪽에 끼우고 銅印机를 세운다.
(필요시 활자 배열작업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 ③ 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원고를 순서대로 불러준다. (唱準)
- ④ 창준이 불러준 글자를 字櫥(활자보관함)에서 대나무 젓가락으로 골라내어 小沙板(井間이 없는 板) 위에 차례대로 놓는다. (守櫥諸員)
- ⑤ 순서대로 놓인 판을 판짜기를 위하여 鐵弓里冊版으로 옮긴다. (上板)

다만 본고에서는 임진자 조판 복원실험의 내용 중 특이하고 중요시한 부분에 국한하여 그 조판의 과정에 대하여 차례대로 논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목재로 된 인판틀을 마련하고 여기에 영인한 「아송」 권6의 제1장을 뒤집어 부착한다(<사진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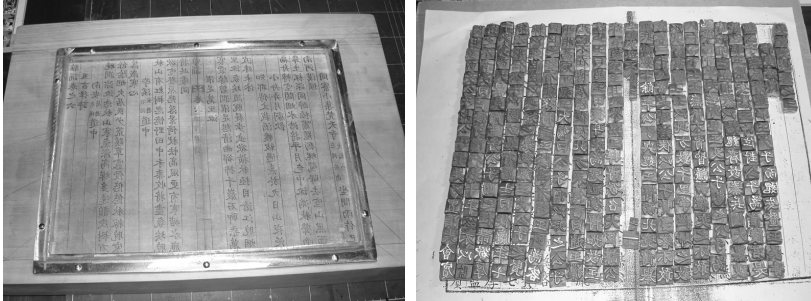
<사진 7> 인판틀의 마련 및 「雅誦」 권6 제1장을 뒤집어 부착한 모습

둘째, 임진자 특히 「아송」은 그 광곽(銅弓里)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본(底本)의 규격에 맞는 일체형의 동우리를 준비하고, 미리 鑄造・植字된 제1장의 금속활자들을 동우리 속에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준비한다.³¹⁾

- ⑥ 版心部分의 空木, 魚尾, 版心題(경우에 따라 목판 및 連刻活字), 卷次, 張次의 활자를 배열하고 空木을 끼워 공간을 확보한다.
- ⑦ 鐵弓里 내에서 활자의 높이・활자간의 간격, 활자와 銅印札(계선)과의 간격을 짚은 종이, 字間朴只(나무・대나무 조각) 등을 끼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均字匠)
- ⑧ 활자가 없는 부분은 空木(靑竹 등을 사용)을 끼워 고정시킨다. 이 때 行間과 각 글자의 상하 폭이 일정하도록 行間 폭의 기준자나 별도의 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⑨ 어느 정도 판짜기를 마치면 고르게를 이용하여 판면을 일정하게 고른다.
- ⑩ 완성된 판에 먹을 바르고 시험 인쇄를 한다. (印出匠)
- ⑪ 첫 印出紙에 의거하여 글자의 교정과 인쇄의 상태를 점검한다. (監校官)
- ⑫ 洗補에 의하여 朱墨으로 교정된 부분에 따라 均字匠이 판과 활자를 고친다.
일반적으로 初見, 再見, 三見을 거치고 이때 담당자를 표기한다.
- ⑬ 점검이 끝난 판은 본격적인 인쇄작업에 들어간다.
- ⑭ 한 판이 인쇄되는 동안 다른 판의 조판이 끝나면 번갈아 찍기와 해체를 반복한다.

31) <사진 8> 참조.

이때 광곽의 바깥크기는 세로25.3cm × 가로36cm, 광곽의 上部 두께 0.2cm 정도가 인쇄되는 동우리를 마련하는 등, 원본 인쇄상태와 동일하고 정확한 再現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동우리를 小頭釘으로 인판틀에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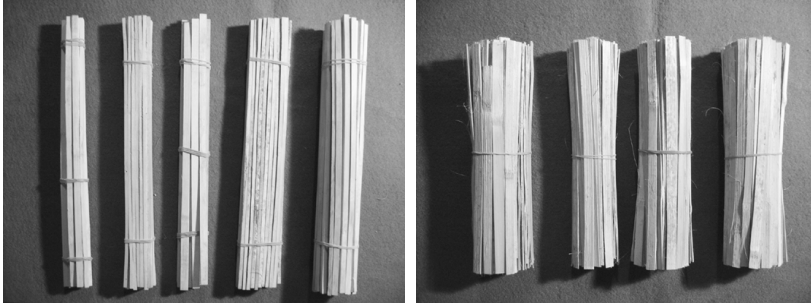
<사진 8> 인판틀에 철우리 고정 및 주조식자된 「雅誦」 권6 제1장 금속활자

셋째, 첫 행부터 이미 식자된 활자로 조판을 시작한다. <사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은 각 行의 조판에서 제목 등의 下部에 빈 칸(行) 즉, 활자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다시 말하여, 이 책은 詩集이기 때문에 각 권의 卷首題・卷內容題・各詩의 題目・시 내용의 末尾 등의 辨別을 위하여 그 해당 행의 아래 부분을 여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사진 6>에서 제1・2・3・6・7・9행 등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이와 같이 각 행에서 큰 여백을 메워야 하는 조판에서는, <사진 9>의 왼쪽 사진 및 <사진 10>의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填充大竹 또는 空木을 해당 공간의 크기로 알맞게 잘라서 그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넷째, 활자의 세로크기가 작은 활자의 경우, 전체 조판에서 가로줄의 활자 배열이 가지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활자의 바로 위 활자와 아래 활자의 간격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그 높이가 활자높이보다 낮은 竹片을 빈 공간에 알맞는 상태로 제작하여 끼우는 방안³²⁾으로 그 字間을 조절함으로써, 인쇄면의

32) <사진 9>의 填充用 大竹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가공하여 사용한다.

각 글자들이 가로 상태로도 가지런하도록 조정한다. 그 다음에 제2행과 구별하기 위하여 계선 채우기 작업을 실시한다. 이 때 계선은 계선용 竹片³³⁾ 또는 銅印札을 미리 제작하여 활용한다.



<사진 9> 行 및 字間을 메울 竹片(填充大竹) 및 界線用 竹片³⁴⁾



<사진 10> 「아송」의 조판 시작 모습 및 계선 채우기와 활자의 높이 조정

다섯째, <사진 10>의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자의 높이가 낮은 활자를 조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현종실록 찬수청의궤』에서는 조판에서 활자의 높이가 낮을 때에는 填充休紙를 물에 적서 그 낮은 공간을

33) <사진 9>의 오른쪽 사진, <사진 10>의 오른쪽 사진. 참조.

34) 옥영정, “한글 금속활자 복원을 위한 주조 및 조판 실험진행 연구,” 『갑인자와 한글활자』, 422.

메우는 방법을 사용한 사례는 이미 고찰하였다.³⁵⁾ 본 복원 실험에서도 이 사례를 적극 고려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던 당시 물에 적신 災傷休紙 등을 사용한 사례는 지양하고, 그 대신 전공휴지 代用으로써의 白休紙 개념으로 韓紙를 알맞은 상태로 접거나 잘라서 이를 중첩하여 그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무릇, 어떤 기술적인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비록 작업공정이 복잡하더라도 그 일련의 공정을 단순화시키면서 간단·용이하고 일하기 편하면서도 능률이 오르고 효율성이 좋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시도하는 방향으로 일머리를 돌리기 마련이다.

바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임진자의 조판공정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는 개개 활자높이를 수평으로 일정하게 조절하는 문제에서, 그 높이가 평균 활자높이보다 낮은 해당 활자의 바닥에 韓紙를 활자의 가로·세로 크기의 규격에 맞게 접거나 잘라서 단계적으로 그 높이를 고이면서 조절하는 방안³⁶⁾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의 활자를 차례로 밀착시키면서 각 활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여섯째, 이 책의 복원 조판에서는 특히 판심 부분 즉, <사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느 판심과는 조금 특이한, ‘上二葉花紋魚尾(單線, 單線) 下無魚尾(單線)’의 형태, 版心題가 上白口에 위치하는 문제, 卷次와 卷內容題 및 卷張次의 위치 및 배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유념하여 版心部分의 版心題·魚尾·卷次·卷內容題·張次의 활자들을 배열하고, 空木을 활용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일곱째, 그리하여 「아송」 권6 제1장의 오른쪽 張의 모든 활자도 또한 차례로 배치·조절하여 그 조판을 완성하고, 인쇄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³⁷⁾

위와 같이, 임진자 「雅頌」은 그 조판방식에 있어서, 광곽의 사용에 있어서 ‘일체형 동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판심의 모양이 특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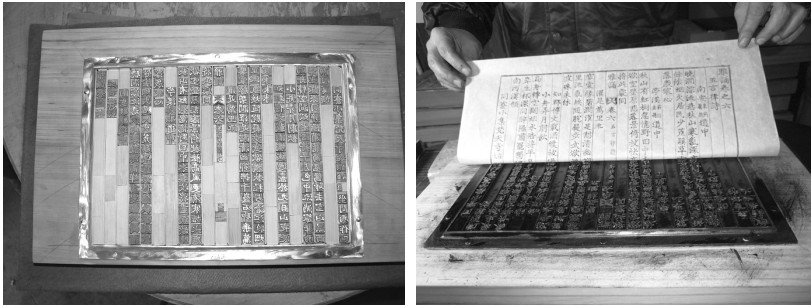
35) 각주 14)의 본문 참조 요.

36) <사진 10>의 오른쪽 사진 참조 요.

37) <사진 11>, <사진 12> 참조 요.

38) 반면에 제3·4주 갑인자인 무오자와 무신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립식 조판법’을 사용하

이와 같은 ‘일체형 조판 방식’은 그 제작에 있어서 ‘조립식 조판 방식’보다 땀질을 한다거나 또는 아예 처음부터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일체형은 광곽의 일그러짐 등을 처음부터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사진 11> 「아승」 첫장의 완성된 조판 모습 및 인쇄하기



<사진 12> 「아승」 권5 제1장이 인쇄된 모습 및 인쇄 후의 조판 상태

요컨대, 임진자 「아승」은 제3·4주 갑인자인 무오자·무신자의 판심의 형태와 조판의 방법에서 각각 전혀 相異한 조판법을 보임으로써, 18세기 후기 금속활자의 주조 및 조판에서 독특한 양식을 보이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명 18세기 후기 금속활자의 주조 및 조판에 있어서, 조판과 인쇄의 능률을 높임으로써 17세기의 금속활자인쇄술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되고 개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정유자의 조판 복원

제6주갑인자인 丁酉字는, 正祖(1776-1800)가 국왕으로 등극한 初年인 1777(正祖 1)년 8월 3일에 平安監司였던 서명응에게 명하여 평양에서 초주 갑인자로 15만자를 더 주조(加鑄)하게 한 동활자이기 때문에, 정조가 동궁 시절인 1772년에 초주갑인자를 저본으로 하여 15만자를 주조케 한, 壬辰字의 復刻 또는 再鑄라고도 볼 수도 있다.

<사진 13>에 보는 바와 같이, 정유자며 正祖의 御纂인 『史記英選』³⁹⁾ 卷之三의 금속활자는 임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조판의 방법 또한 거의 흡사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판심 사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卷次의 조판에 있어서, 정유자의 小字를 사용하면서 이를 판심 中峰의 오른쪽에 치우치는 방법으로 조판하고 있음이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⁴⁰⁾

정유자의 조판 복원 실험의 특징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⁴¹⁾

39) 正祖가 司馬遷의 『史記』와 班固의 『漢書』 내용 가운데 후세에 교훈이 될 만한 부분을 뽑아, 1796년(정조 20) 12월 25일에 鑄字所에서 丁酉字(1777 鑄造)로 간행한 책. '6권 3책' 또는 '8권 5책'의 活字本 또는 木板本으로 여러 판본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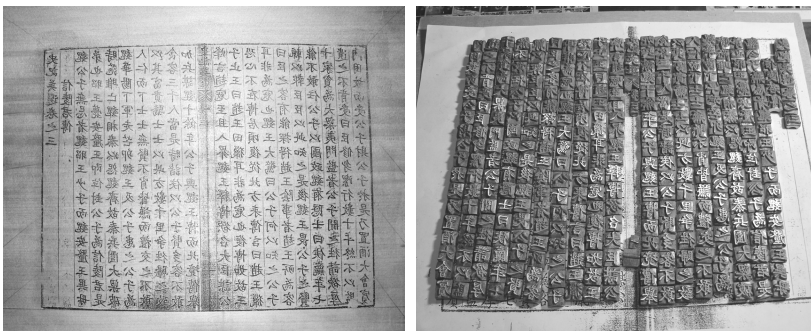
40) 반면에 임진자 『아송』의 조판에서는 그 권차의 기입에서 그 활자의 표준 활자크기와 같은 활자를 사용하고, 이를 中縫의 가운데 위치하도록 조판하고 있음이 그 차이라 할 수 있다.

41) 그밖에 정유자의 주조 및 조판 복원에 참고한 자료는 『御定杜陸千選』 卷之三, 『春秋左傳』 卷之三十六, 『朱書百選』 卷之一, 『鄉禮合編』 卷之二 등이다.



<사진 13> 「史記英選」 卷之三의 第1張

첫째, 목재로 된 인판들을 마련하고 여기에 영인한 「史記英選」 권3의 제1장을 뒤집어 부착한다(<사진 14> 참조).



<사진 14> 인판들에 「史記英選」 권3 제1장의 영인본 부착 및 식자된 금속활자

둘째, 「사기영선」 또한 그 광곽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기영선」 底本の 규격에 맞는 일체형의 동우리를 준비하고, 미리 植字된 제1장의 금속활자들을 동우리 속에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준비한다.⁴²⁾

셋째, 첫 행부터 조판을 시작한다. 이 때 하부의 빈 칸은 ‘활자의 가로크기와 같은 空木’을 세로의 빈 칸 만큼 잘라서 그 공간을 메운다. 그리고 활자의 세로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세로크기가 작은 활자의 위 부분에 ‘空木’을 보완하여, 인쇄면의 활자가 각 행의 가로로 가지런하도록 조정한다. 그 다음에 제2행과 구별하기 위한 계선 채우기 작업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활자의 높이가 낮은 활자는 그 해당 활자의 아래 즉 인판의 바닥 부분에, 임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활자의 높이만큼 한지를 중첩하여 고이고 그 위에 해당 활자를 배치한다(<사진 15> 참조).



<사진 15> 「사기영선」 조판의 계선 채우기와 활자의 높이 조정, 및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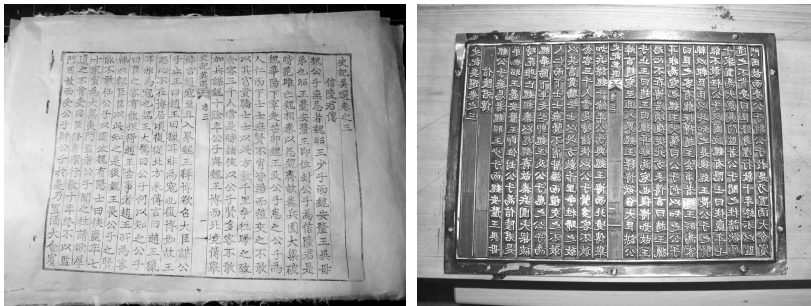
특히, 御纂인 「사기영선」(1796)을 조판하는데 있어서, 「英宗大王實錄廳儀軌」(1781-1782)의 조판·印出의 사례⁴³⁾에서 제시되었던 18세기 후기 당시의 조판·인출에 관한 技術과 人力이 총동원되었을 것임이 明若觀火하다. 따라서 그 당시의 조판·인출에 사용되었던 기술 즉, 활자와 활자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는

42) <사진 14>의 우측 사진 참조.

43) 「英宗大王實錄廳儀軌」의 更子年(1780)·辛丑年(1781)의 사례(남권희, “朝鮮時代 金屬活字 鑄造와 組版에 관한 研究,” 81-90.) 참고 요.

‘字間朴只’, 매판에 빈틈을 메우는 휴지인 ‘塡空休紙’, 인출할 때 均字匠이 쓸 塡空 대나무인 ‘塡空大竹’, 군자장이 塡空작업에 쓸 白休紙는 경비가 많이 소요 되므로 그 대신 ‘災傷休紙’를 사용하는 문제, ‘塡空에 쓸 대나무 小升’ 등등을 활용하여 개개 활자 사이의 간격을 맞추거나 각 활자의 높이를 조정하면서도 그 조판에 조금도 빈틈이 없게 확고하게 고정함으로써, 印出할 때에 조판면이 조금도 흠어지지 않게 조처하였을 것임은 틀림이 없다. 결국, 이러한 조처는 18세기 후기 제6주갑인자의 流麗하고도 아름다운 인쇄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要因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그리하여 『사기영선』 권3 제1장의 모든 활자와 계선들을 차례로 식자·배치·빈틈고정을 거쳐서 그 조판을 완성하고 그 인쇄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⁴⁴⁾



<사진 16> 『사기영선』 권3 제1장의 인쇄완료 모습 및 인쇄 후의 조판 상태

결과적으로, 본 장에서 정유자의 『사기영선』 권3 제1장의 조판 복원은, 판심사항의 조판 부분을 제외하고는 임진자 조판의 경우와 類似하기 때문에, 실제 그 조판 복원의 실험에서는 임진자의 조판 방법에 입각하여 실시한 결과, 큰 애로사항이나 무리가 없이 무난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요컨대, 본 장에서는 정유자를 조판하는데 있어서 ‘字間朴只·塡空休紙·塡空大竹’·‘災傷休紙·塡空用竹小升’ 등을 활용하여 개개 활자 사이의 간격을

44) <사진 16> 참조.

맞추거나 각 활자의 높이를 조정하면서도 그 조판에 조금도 빈틈이 없게 확고하게 고정함으로써, 印出 당시에 조판면이 조금도 흠어지지 않게 조치하여 결국 아름다운 인쇄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새롭게 규명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제5주갑인자인 壬辰字와 제6주갑인자인 丁酉字의 조판을 복원하기 위한 실험·고증 연구로써, 이상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임진자의 조판 복원을 위한 방법론 고증’에서는, ‘임진자 조판 복원 실험의 단서’로, <고려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복원된 ‘임진자 조판 복원의 실물’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임진자와 정유자가 鑄成된 영·정조 당시의 관련 기록을 『日省錄』 등에서 살펴보았다. 즉, 『일성록』의 1796년(正祖 20) 12월 15일조에 의하면, “正祖가 壬辰字·丁酉字·韓構字의 주조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면서, 전후에 만든 활자의 銅體가 같지 않아서 활자를 배열할 때는 모두 물에 젖은 종이를 덧붙여 사용하였으며, 별도로 몇 사람에게 주묵으로 구절에 따라 지워 놓고 기울지는 것을 바르게 고치고자 하였으나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감”을 밝히고 있었다. 따라서, 임진자와 정리자 그리고 한구자 등의 활자 높낮이가 서로 약간씩 각각 다른 단독활자 또는 이들 활자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조판할 때, 높이가 부족한 활자의 아랫부분에 종이를 물어 적서 덧대는 방법 등으로 그 높이를 수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填充紙는 실록 조판·인출의 전례에 있어서, 백휴지와 제상휴지가 무려 1,022근이나 소용되었음을 注目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휴지들은 활자의 높이 조정뿐만 아니라 填充大竹과 함께 조판상의 모든 공백을 메우는데 총동원되었음을 考證할 수 있었고, 이것은 그 조판에서 밀랍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確證

하는 중요한 端緒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임진자의 실제 조판실험에서 밀랍을 사용하지 않고, 활자의 높이가 낮은 해당 활자에 국한하여 부분적으로 填充休紙 등을 활용하여 그 부족한 높이를 인판 바닥에 채워 고임으로써, 임진자 조판 활자면의 전체적인 수평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를 조판 실험의 고증 방안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제3장 ‘임진자의 조판 복원’에서는, 그 광곽의 형태는 ‘일체형의 동우리’를 사용하여 그 조판에 임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첫 행부터 식자된 활자로 조판을 시작할 때, 하부의 빈 칸은 ‘빈 竹木’으로 메운다. 그리고 활자의 세로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세로크기가 모자라는 활자 부분은 ‘空木’을 해당 활자의 위·아래 부분에 가로로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인쇄면에서 가로 부분 또한 가지런하도록 조정하였다. 그 다음에 제2행과 구별하기 위한 계선 채우기 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특히 임진자의 개개 활자높이를 수평으로 일정하게 조절하는 문제는, 높이가 낮은 해당 활자 아래에 韓紙를 활자의 가로·세로의 규격으로 重疊하며 접거나 잘라서 고이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개개 활자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수평으로 均整하게 맞추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의 활자를 식자하여 밀착시키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조판된 전체 틀이 흩어지지 않고 고정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아송」 권5 제1장의 모든 활자를 차례로 그 조판을 완성하고 아울러 인쇄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셋째, 제4장 ‘정유자 조판 복원 실험’에서는, 정유자의 『사기영선』 권3 제1장의 조판의 실재를 논술하였다. 여기서, 임진자와 조판의 차이를 보이는 ‘판심 사항’의 조판에 유념하고, 그밖의 사항은 임진자 조판의 경우와 類似하기 때문에, 실제 그 조판 복원의 실험에서는 임진자의 조판 방법에 입각하여 실시한 결과, 큰 애로 사항이나 무리가 없이 무난하게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요컨대, 임진자와 정유자의 조판 복원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어 가지의 새로운 문제를 糾明하여 학계에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로 임진자의 조판에 있어서, 종래 ‘밀랍을 인판틀의 바닥에 깔아서 조판하였다’는 견해와는 달리, 18세기 후기 금속활자의 조판에는 「일성록」의 기록에

“正祖가 壬辰字・丁酉字・韓構字의 구조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면서, 전후에 만든 활자의 銅體가 갇지 않아서 활자를 배열할 때는 모두 물에 젖은 종이를 덧붙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注目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록에 근거하여, 활자 높낮이가 서로 약간씩 각각 다른 활자들을 조판할 때, 그 높이가 부족한 해당 활자의 아랫부분에 填充休紙의 개념인 韓紙를 가로・세로의 크기에 맞게 접거나 잘라서 그 부족한 높이만큼 인판 바닥에 채워 고임으로써, 임진자 조판 활자면의 전체적인 수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판복원 실험의 고증 방안으로 활용하였다는 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둘째로 정유자를 조판하는데 있어서, 활자와 활자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는 ‘字間朴只’, ‘매판에 빈틈을 메우는 휴지인’ 填充休紙 인출할 때 均字匠이 쓸 填充 대나무인 ‘填充大竹’, 군자장이 填充작업에 쓸 白休紙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그 대신 ‘災傷休紙’를 사용하는 문제, ‘填充에 쓸 대나무 小升’ 등의 내용을 응용하여 개개 활자 사이의 간격을 맞추거나 각 활자의 높이를 조정하면서도 그 조판에 조금도 빈틈이 없게 확고하게 고정함으로써, 印出 당시에 조판면이 흩어지지 않게 조치하여 아름다운 인쇄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새롭게 규명하였다는 데 그 두 번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原典

「史記英選」, 第6鑄甲寅字, 1796년(정조 20) 12월 25일 간행, 丁酉字.

「雅誦」, 卷5-8, 第5鑄甲寅字, 1799년(정조 23) 壬辰字 간행.

「易學啓蒙集箋」(1772년(영조 48) 11월 간행) 末尾 徐命應 跋文.

「顯宗實錄 纂修廳儀軌」, 丁巳(1677) 9월 20日, 印出諸具.

「英宗大王實錄廳儀軌」, 更子(1780) 4월 29日, 繕工監 牒報.

更子(1780) 5월 日, 戶曹.

更子(1780) 5月 26日. 戶曹.

辛丑(1781) 3月 19日. 校讎廳甘結秩.

辛丑 4月 初2日. 校讎廳甘結秩.

「正宗大王實錄廳儀軌」. 乙丑(1805) 4月 日. 別工作謄錄.

乙丑 5月 初2日. 校讎廳甘結秩.

「慵齋叢話」

「朝鮮王朝實錄」

2. 單行本

국립중앙박물관. 한글금속활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6.

윤병대.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윤병대. 조선후기 활자와 책. 서울: 범우사, 1992.

청주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구조 및 인쇄기술사 복원 연구 결과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6.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천혜봉.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3. 論文

金聖洙. “壬辰字와 丁酉字의 복원을 위한 鑄造 및 組版 研究.” 갑인자와 한글활자.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372-411.

김성수 · 윤용현. “고려대 소장 임진자 국조보감 판틀」 조사 보고서.” 甲寅字와 한글활자.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506-514.

남권희. “주물사구조법에 의한 금속활자 구조방법 연구.” 금속활자 구조 및 인쇄기술사 복원 연구 결과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6. 46-84.

남권희. “朝鮮時代 金屬活字 鑄造와 組版에 관한 研究.” 「갑인자와 한글활자」.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15-186.

남권희. ‘活字鑄造 및 組版關聯 記錄.’ “朝鮮時代 金屬活字 鑄造와 組版에 관한

- 研究.” 갑인자와 한글활자」.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75-95.
- 옥영정. “한글 금속활자 복원을 위한 주조 및 조판 실험진행 연구.” 「갑인자와 한글활자」.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412-444.
-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의 특징.” 한글금속활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6. 236-251.
- 천혜봉. “甲寅字 鑑識의 諸問題.” 「창사 이춘희 교수 정년기념 논총」(1993), 19-47.